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 준공업 지역 내 2개의 단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Environment Development for Decreasing Fear of Crime

- Focused on the Two Complexes in Sub Industry District -

김대진* / Kim, Dae-Jin

이효창*** / Lee, Hyo-Chang

홍동진** / Hong, Dong-Jin

하미경**** / Ha, Mi-Kyoung

Abstract

The government began to move large scale factories in city out to the suburbs because the city we live in is getting over-populated and becoming a highly congested district. However, because of alteration of use The transfed site of factory became to be mixed and used in residence and factory facility. Lately, as criminal technique and personality become cruel and feral, crime occurrence rose on the one of most important thing that decide resident's quality of lif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crime fear element which resident feel in sub-industry and improvement item for crime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prevent crime by developing a proper housing environment. The survey was planned to find out factors of resident's awareness of fear about crime through pre-study and analyzed physical surrounding through spot survey. Through these investigation, can make following conclusion. First, The importance of lighting plan throughout the city is necessary to decrease fear of crime. Second, a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y is required in park and playgrounds.

키워드 : 범죄 불안감, 준공업 지역, 방범환경, 주거환경 조성

Keywords : Fear of crime, Sub Industry District, Environment of Crime Prevention, Housing Environment Develop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 과밀화로 정부는 도시에 위치하던 대규모 공장을 여타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공장 이전 지에는 주거와 공업시설이 혼재 하게 되어 도시기반시설 부족, 교통난, 환경문제, 범죄발생 등의 도시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¹⁾ 최근에는 범죄의 수법과 성격이 잔인하고 흉포해지면서 범죄발생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외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도시범죄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각종 지침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준공업 지역의 주거환경이 일반주거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

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준공업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가진 주거지역의 거주자가 느끼는 범죄불안 장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도시지역의 준공업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 서로 다른 입지조건을 가진 두 지역의 주거단지를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준공업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입지조건을 가진 지역 거주자의 범죄불안감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2008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2008년 4월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수료(교신저자, spdlee@yonsei.ac.kr)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1)정철용, 준공업지역에서의 토지이용전환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6, p.1 재구성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15부를 배부하여 198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성실히 응답한 19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문헌고찰

2.1. 준공업 지역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6조에 의하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에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 계획결정으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공업지역 중에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²⁾

2.2. 범죄불안감의 의미

범죄불안감은 특정 범죄와 특정 장소에 대해서 느끼는 범죄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의 심리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범죄 발생과는 달리 주관적인 평가이며, 척도화된 어진 불안감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

범죄불안감은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는 거주자가 일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 또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및 분석

3.1. 조사대상 지역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준공업 지역인 강서구 가양동이다. 이 지역 내에서 녹지와 근린공원, 그리고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조건의 주거지역(A지역)과 공장, 물류창고 등이 면해 있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지역(B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의 일반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지의 아파트 단지 개요 및 현장사진

단지	위치	동수	세대수	입주년도	주변시설
A	강서구 가양2동	6	540	1993.03	공원, 학교, 주거단지, 공원 녹지
B	강서구 가양3동	6	1005	1999.03	공장, 물류창고, 아파트형공장, 빗물처리장, 학교

A 단지 현황	주요 현황		
	주차장 CCTV 설치	단지외부 공원	단지외부 산책로
단지 외부	북서쪽으로 23,128㎡의 공원과 산책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교육시설(학교)이 많음.	
단지 내부	주차장 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조명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조명 사각지대 발생	

B 단지 현황	주요 현황		
	단지내부 주차장	단지 출입구	단지외부 공업지역
단지 외부	주위에는 물류창고와 기타 공장들이 위치하여 낙후된 시설이 많음.	공업시설과 단지사이에 막다른 골목과 폐쇄적인 공간이 많음.	
단지 내부	주차장 CCTV, 아파트출입구에 출입차단시스템 미설치.	공원, 보행로의 조명의 조도가 낮고 간격이 넓어 조명 사각지대 발생.	

3.2.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항목

조사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실측조사 공간과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현장조사 대상 공간 및 조사내용

구분	조사 대상 공간	조사내용
주거지역	보행로, 주차장, 출입구, 놀이터	가로등의 조도, 간격
비주거지역	단지 외부 보행로, 삼가&근린생활시설	CCTV 설치개수

조사대상지의 거주자가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공간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고, 설문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조사내용

구분	내용
범죄 불안감 느끼는 장소	막다른 담장과 면한 보행로, 경비초소·보안장치 없는 단지출입구,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보행로, CCTV 미설치 지역 주차장, 공원&놀이터, 학교주변
방법환경 개선요구 사항	경비원, 경찰의 순찰활동 강화, 가로등의 밝기 조절, 가로등의 간격 조절, 막다른 골목 제거, 건물간의 건물과 도로 간의 담장 허물기, 출입통제 시스템, 경비초소
	단지입구, 주차장, 주거단지와 주거단지 간의 보행로, 주거단지와 상업지역 간의 보행로, 주거단지와 중공업지역 간의 보행로, 공원 & 놀이터, 막다른 골목, 각 동의 출입구
주거환경에 대한 이미지	싸움, 청소년의 일탈행위, 경범죄율, 중범죄율, 길거리 무질서, 버려진 공터, 취객, 아이가 밖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설문조사는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내 범죄발생 저감을 위한 설계개선 연구 1993, pp.17-18.

3.3. 조사결과

(1) 물리적 환경 분석

지역별 물리적 환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적용공간	세부항목	단위	조사결과 (평균)			
			전체평균	A단지평균	B단지평균	
단지 내부	보행로	가로등의 조도	lx	16.95	20.60	13.30
		가로등의 간격	m	27.60	24.20	31.00
	주차장	가로등의 조도	lx	12.10	14.70	9.50
		가로등의 간격	m	31.00	28.00	34.00
	출입구	CCTV 설치개수	ea	0.75	1.5	0
		CCTV 설치개수	ea	0.50	1	0
	공원 & 놀이터	가로등의 조도	lx	5.25	7.00	3.50
		가로등의 간격	m	23.00	22.00	24.00
	평균값	가로등의 조도	lx	11.43	14.10	8.77
		가로등의 간격	m	27.20	24.73	29.67
CCTV 설치개수		ea	0.63	1.25	0	
단지 외부 보행로	가로등의 조도	lx	28.25	38.00	18.50	
	가로등의 간격	m	40.00	40.00	40.00	
	CCTV 설치개수	ea	0	0	0	
	상가 앞 조명의 조도	lx	33.30	20.60	46.00	
단지 외부 상가시설	가로등의 간격	m	40.00	40.00	40.00	
	CCTV 설치개수	ea	0.50	1	0	
	가로등의 조도	lx	30.78	29.30	32.25	
평균값	가로등의 간격	m	40.00	40.00	40.00	
	CCTV 설치개수	ea	0.25	0.50	0	

* 음영처리는 평균값을 나타낸다.

현장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물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다. 단지 내부에서 전체적인 평균조도와 간격이(11.43lx, 27.2m), CCTV 설치개수는 0.63개로 나타났다. 가로등의 조도는 5.25lx(공원&놀이터)에서 16.95lx(보행로)의 분포로 보이고 있다. 가로등의 간격은 23m(공원&놀이터)에서 31m(주차장)의 분포로 보이고 있다. CCTV는 0.5개(출입구)에서 0.75개(주차장)의 분포로 보이고 있다. 또한 단지외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조도와 간격(30.78lx, 40m), CCTV 설치개수는 0.25개로 나타났다. 가로등의 조도는 28.25lx(보행로)에서 33.3lx(상가시설)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로등의 간격은 40m로 동일하고, CCTV는 상가시설에 1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A단지에 비해서 주거와 공업시설이 혼재 되어있는 B단지의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 되었고, 환경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단지 모두 '공원&놀이터'의 조명계획(A단지:7lx, B단지:3.5lx)이 다른 장소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소의 성격상 저녁이후의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공간상의 특성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때문에 청소년 일탈행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단지외부는 B단지가 A단지에 비해서 조명의 조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B단지 경우 학원과 술집 등 늦은시간 까지

이용 하는 시설들이 많았고, A단지는 부동산, 서점, 문방구 등 저녁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어 조명의 조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2) 거주자가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공간

거주자가 범죄불안감을 어느 장소에서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공간별 거주자가 느끼는 범죄불안감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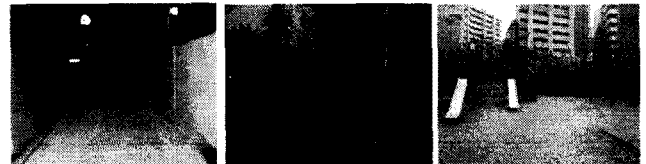
n=190 (A단지=95, B단지=95)

조사항목	전체평균	A단지평균	B단지평균	평균차이 ¹⁾
막다른 담장과 면한 보행로	2.40	2.86	1.93	+0.93
경비초소, 보안장치 없는 단지출입구	2.75	3.11	2.38	+0.73
조명이 없는 보행로	2.03	2.34	1.72	+0.62
CCTV 미설치 지역	2.38	2.59	2.17	+0.42
주차장	2.62	2.85	2.38	+0.47
공원 & 놀이터	2.80	3.07	2.52	+0.55
상가근린생활 시설 주변	3.01	3.22	2.80	+0.42

¹⁾ 1=매우불안, 2=불안, 3=보통, 4=안전, 5=매우안전

* 음영표시는 범죄불안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 평균차이는 A단지의 평균값에서 B단지 평균값을 뺀 값으로 한다.



(a) 막다른 담장과 면한 보행로 (b) 조명이 없는 보행로 (c) CCTV 미설치 지역

<그림 1> 거주자가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공간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거주자가 범죄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장소는 '조명이 없는 보행로'(2.03), 'CCTV 미설치 지역'(2.38), '막다른 담장과 면한 보행로'(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A단지는 '조명이 없는 보행로'(2.34), 'CCTV 미설치 지역'(2.59), '주차장'(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B단지는 '조명이 없는 보행로'(1.72), '막다른 담장과 면한 보행로'(1.93), 'CCTV 미설치 지역'(2.17)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지역 평균 차이는 '막다른 담장과 면한 보행로'(+0.93), '담장의 높이'(+0.73), '조명이 없는 보행로'(+0.62)로 나타났다. 단지마다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A단지에 비해서 B단지가 범죄불안감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지 모두 '조명이 없는 보행로'에서 범죄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조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막다른 보행로'에서 두 지역 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지역을 분리하기 위해 생겨난 높은 울타리 때문에 공간이 폐쇄적으로 되고, 자연스러운 감시기능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 방법환경 개선요구사항

방법환경 개선에 대하여 거주자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방법환경 개선요구사항

n=190 (A단지=95, B단지=95)

조사항목	전체평균	A단지평균	B단지평균	평균차이
순찰활동강화	3.69	3.72	3.66	+0.06
가로등 밝기조절	3.91	3.88	3.93	-0.05
가로등 간격조절	3.83	3.87	3.79	-0.08
막다른 골목제거	3.66	3.75	3.58	+0.17
건물 담장 허물기	3.31	3.49	3.12	+0.37
출입통제시스템	3.70	3.67	3.72	-0.05
경비원 초소	3.57	3.48	3.65	-0.17

1=매우불필요, 2=불필요, 3=보통, 4=필요, 5=매우필요
 * 음영표시는 개선요구사항에 관한 거주자의 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 평균차이는 A단지의 평균값에서 B단지 평균값을 뺀 값으로 한다.

설문결과 전반적 방법환경 개선요구사항으로 '가로등 밝기 조절'(3.91), '가로등 간격 조절'(3.83), '출입통제 시스템'(3.7)등이 나타났다. A단지에서도 '가로등 밝기 조절'(3.88), '가로등 간격 조절'(3.75), '막다른 골목제거'(3.75)순으로 나타났다. B단지 역시 '가로등 밝기 조절'(3.93), '가로등의 간격 조절'(3.79), '출입통제 시스템'(3.7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단지 평균차이는 '건물 담장 허물기'+(0.37), '막다른 골목제거'+(0.17), '경비원 초소'(-0.1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 단지 모두 조명계획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출입구 마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A단지와 미설치 되어있는 B단지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차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단지를 통해 출입통제시스템의 범죄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출입통제시스템만으로 범죄 예방효과가 부족하고 다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CCTV 설치장소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

CCTV 설치장소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은 8가지 항목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설문결과 전반적으로 거주자의 CCTV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장소는 '공원&놀이터'(A단지:4.13, B단지:4.29), '주차장'(3.99), '막다른 골목'(3.94)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두지역의 응답결과는 거의 비슷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원&놀이터'(A:단지:4.13, B단지:4.29), '주차장'(A:단지:3.88, B단지:4.09), '막다른 골목'(A:단지:3.82, B단지:4.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단지의 차이는 '주차장'(A:단지:3.88, B단지:4.09), '막다른 골목'(A:단지:3.82, B단지:4.05)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평균차이는 '막다른 골목'(-0.23), '주차장'(-0.21), '공원&놀이터'(-0.16)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에서 '공원&놀이터'로의 직접적인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아이가 혼자 밖에 나가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단지계획 초기에 '공원&놀이터'의 시야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단지의 경

우 주차장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의 개선요구사항이 높았다. 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 7> 공간별 CCTV 설치 필요성

n=190 (A단지=95, B단지=95)

조사항목	전체평균	A단지평균	B단지평균	평균차이
단지입구	3.59	3.56	3.61	-0.05
주차장	3.99	3.88	4.09	-0.21
주거단지 보행로	3.46	3.46	3.45	+0.01
주거,상업 보행로	3.57	3.51	3.63	-0.12
주거,중공업 보행로	3.61	3.57	3.65	-0.08
공원 & 놀이터	4.21	4.13	4.29	-0.16
막다른 골목	3.94	3.82	4.05	-0.23
각 동의 출입구	3.8	3.73	3.87	-0.14

1=매우불필요, 2=불필요, 3=보통, 4=필요, 5=매우필요
 * 음영표시는 거주자의 CCTV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 평균차이는 A단지의 평균값에서 B단지 평균값을 뺀 값으로 한다.

(5)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8가지 항목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지역 내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

n=190 (A단지=95, B단지=95)

조사항목	전체평균	A단지평균	B단지평균	평균차이
싸움이 자주일어난다.	2.86	2.80	2.92	-0.12
청소년 일탈행위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3.34	3.03	3.64	-0.61
경범죄 범죄율이 높다.	3.09	2.78	3.40	-0.62
중범죄 범죄율이 높다.	2.72	2.72	2.71	+0.01
길거리가 지저분하다.	3.15	2.92	3.38	-0.46
버려진 빈집이나 공터가 있다.	2.47	2.44	2.49	-0.05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	3.03	3.05	3.01	+0.04
보호자 없이 아이가 밖에 나가있으면 불안하다.	3.56	3.38	3.74	-0.36

1=매우아니다, 2=아니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그렇다
 * 음영표시는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 평균차이는 A단지의 평균값에서 B단지 평균값을 뺀 값으로 한다.

설문결과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은 '보호자 없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 불안하다'(3.56), '청소년 일탈행위 목격'(3.34), '길거리가 지저분하다'(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A단지는 '보호자 없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 불안하다'(3.38),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3.05), '청소년 일탈행위 목격'(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B단지는 '보호자 없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 불안하다'(3.74), '청소년 일탈행위 목격'(3.64), '경범죄 범죄율이 높다'+(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평균차이는 '경범죄율이 높다'(-0.62), '청소년 일탈행위 목격'(-0.61), '길거리가 지저분하다'(-0.4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 단지 모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밖에 나가있으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에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대상지 뿐만 아니라 어

는 지역이든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많은 여가시간을 ‘공원&놀이터’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환경정비체계가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범죄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준공업 지역 내에 위치한 2개의 지역을 분석 하였고, 지역 내의 거주자들이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와 방범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주거환경 의식을 묻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공장과 섞인 혼재지역에 속한 B지역은 비교적 주거지역에 속하는 A지역에 비해 단지 내·외부의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범죄불안감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거주자가 범죄불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공간은 ‘조명이 없는 보행로’로 나타났으며, 방범환경 개선요구사항에서는 ‘가로등의 밝기와 간격조절’이 가장 많은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불안감 감소를 위해서 조명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둘째, CCTV 설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장소는 ‘공원&놀이터’로 나타났고, 지역 내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에서 ‘보호자 없이 아이가 밖에 나가있으면 불안하다’라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들의 중요 외부 활동공간이 주로 ‘공원&놀이터’라는 점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대상 강력범죄자들에 의해 사회와 가정에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놀이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 계획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단지계획 초기에 자연적인 감시 가능한 배치 및 건축물계획을 고려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사가 설문과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안감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계획이나 범죄발생 공간에 대한 분석까지 깊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천용, 준공업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전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200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내 범죄발생 저감을 위한 설계개선 연

구, 1993.

4. 김영 외 1인, 방범대책을 고려한 방어공간으로써의 아파트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1986.
5. 강석진 외 2인, 도시주거지역에서의 근린관계 활성화를 통한 방범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 2007.
6.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Singapor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 Book, 2003.
7. Prince William County, Virginia, CPTED Strategies, 2003.
8. 이은혜 외 2인, 지구단위 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2008.